정훈의 「학포기몽」 연구

양승목*

|| 차례 ||

- I. 정훈과 『학포집』
- II. 「학포기몽」의 경계
- III. 창작의 배경과 동기
- IV. 양식적 특징과 함의
- V. 맺는말

【국문초록】

이 글은 17세기 전반 영남 강우지역의 문인 學圃 鄭暄이 지은 한문산문 「기몽」의 문학적 의미를 본격적으로 분석해본 것이다. 이 작품은 물론 정훈이라는 인물 또한 고전문학 연구장에서 거론된 바가 거의 없었던바, 먼저 작자와 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정리해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사안에 주목하여 정훈의 내면적 의식과 지향, 그에 따른 창작과정의 고민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먼저 이 작품이 지어지는 배경과 동기이다. 「학포기몽」은 1638년 청나라가 조선에 5,000명의 군사를 징집해 보낼 것을 요구한 시점에 지어진 작품이다. 정훈은 정인홍과의 관계 때문에 일생동안 고향 근방에서 은거하며 피세적 태도를 견지한 채 현실정치에 대한 발언은 극도로 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 중화적 질서가 붕괴되어 가는 상황은 그로선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에 반응하여 자신의 지향과 경륜을 표출한 것이 「학포기몽」이라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zimwoo@dgu.ac.kr

규정하였다.

한편 양식적 특징과 그 의미도 고찰이 필요하였다. 「학포기몽」은 몽기의 표지와 특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서술된 꿈 내용이 지나치게 긴데다 현실문제에 대한 논설의 성격을 갖고 있어 몽유록적 자질도 동시에 감지되는바, 記夢과 托夢 어느 한 쪽으로 간단히 분류시키기 어려운 작품이다. 본고에서는 양단의 특징을 세밀하게 살펴 기본적으로 몽기의 자장에 있되 집필의 과정에서 일정 정도 몽유록의 작법에 착안한 바 있으며, 이후 등장하는 논변형 몽기를 예비하는 위치에 있는 작품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학포기몽」이 전통시대 꿈을 소재로 한 문학창작, 또 그 전통이 갖고 있었던 역동성을 보여주는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정훤, 『학포집』, 「학포기몽」, 기몽문학, 몽기, 꿈

1. 정훤과 『학포집』

본고의 목표는 「學圃記夢」이라는 작품을 소개하고 그 창작 동기와 양식적 특징을 살펴 이 작품의 의미를 고구해보는 것이다. 작품 소개를 일차적인 과제로 삼은 것은 이 작품이 고전문학 연구에서 거론되었던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¹⁾ 작품뿐만 아니라 이를 지은 작가 鄭暄 또한

1) 「학포기몽」을 다룬 기존의 연구는 두 편 정도가 있다. 하나는 이 작품을 통해 대의 명분을 추구하는 정훤의 지향을 읽어낼 수 있고 그것이 정몽주에 대한 숭모의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 강동욱의 연구이다. 또 하나는 전통시대 몽기라는 산문양식의 전개양상을 살펴며 이 작품의 존재를 거론한 필자의 연구이다. 단 둘 모두 이 작품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은 아니다. 강동욱, 「學圃의 生涯와 圃隱崇慕 樣相」, 『포은학연구』 제7집, 포은학회, 2011, pp.173-179; 줄고, 「朝鮮後期 夢記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pp.194-198.

문학 분야에서는 익숙한 인물이 아니다. 해서 먼저 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확보하는 것으로 논의의 포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훤은 1588년 1월 6일 경남 합천 종간리에서 태어나 환갑을 채 맞지 못하고 1647년 6월 29일 진주 대평면 자택에서 지병으로 삶을 마쳤다. 그는 몇 차례에 걸쳐 거처를 옮겼지만 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합천, 단성, 진주 등 경남 서부 일원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 지역이 그의 연고지가 된 데는 짧지 않은 내력이 있다. 정훤의 본관은 연일로 鄭夢周가 그의 8대조가 되는데, 포은의 장손 鄭保로 인해 그 후손들이 이곳 서부 경남에 자리를 잡게 된다. 사연인즉, 이른바 단종 복위의 거사가 발각되었을 때 그는 成三問, 朴彭年 등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빌미로 韓明澮가 그에게 亂言의 죄목을 씌워 연일로 유배를 보냈던 것이다. 이후 정보는 丹城, 그러니까 지금의 산청으로 이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로부터 그 후손의 일부가 이 지역에 세거하게 되었다.²⁾

정훤의 생애를 관통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꼽아볼 수 있다. 하나는 학문이다. 그는 江右 지역의 대학자였던 曹植을 사숙하며 학문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던 인물이다. 이는 그의 선조가 서부경남에 정착한 이래 주로 무관직으로 출세했다는 사실³⁾과 흥미로운 보색을 이룬다. 기실

2) 정몽주의 후손이 경남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 경위와 상황은 다음 두 논문에서 보다 상세하게 고찰된 바 있다. 김준형, 「조선시대 圃隱 후손의 경남 서부지역 정착과 활동」, 『포은학연구』 제7집, 포은학회, 2011, pp.125-131; 정경희, 「조선시대 포은 후손의 경남 동부지역 이거 양상 연구」, 『포은학연구』 제13집, 포은학회, 2014, pp.187-193.

3) 정훤의 증조부인 鄭世弼은 무과에 급제하여 병마절도사를 지냈으며 이후 그의 자손들도 대개 무과로 나가 찰방, 훈련원정, 첨사, 병조참판 등의 벼슬을 지냈다. 이에 대한 내용은 『學圃集』에 수록된 「行狀」, 「墓誌」, 「墓表」 등에서도 볼 수 있거니

정훤 또한 무락이 출중하여 일컬음을 받은 바 있고, 약관 무렵에는 부친이 무과를 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과업이 학문에 있음을 단호하게 선언하고,⁴⁾ 일생동안 출사하지 않은 채 학업과 덕행을 닦으며 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14세 때 『小學』을 보고 분발했다는 서술, 20세 때 과거공부를 폐하고 『心經』과 『近思錄』 등에 침잠했다는 기록, 30세 때 향시에 응시하던 朴綱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그로 하여금 과거를 그만두고 함께 理學에 매진하게 한 사례, 50대 중반 두 번에 걸쳐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상경하여 사은숙매만 올리고 그 길로 내려온 일 등, 그의 삶에서 중요하게 기술되는 대목 중 많은 부분이 학문을 향한 그의 열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鄭仁弘이다. 정훤은 장인 文弘遠을 고리로 정인홍과 戚分이 있었으며 사제의 연도 맺고 있었다. 1611년 정인홍의 「晦退辨斥疏」가 논란을 일으켰을 때 그의 주장을 옹호하는 단독상소를 올렸던⁵⁾ 정훤이기도 한 만큼 둘의 관계는 껍 깊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

와, 더욱 자세한 서술은 이시분이 지은 「단성지」에서 찾을 수 있다(李時馥, 『雲窓集』 卷2, 「丹城誌」, 「都山八坊考證」의 제8방 ‘文泰’ 부분).

- 4) 이는 정훤의 생애를 정리한 수종의 글편에서 공히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묘지」의 해당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李時馥, 『學圃集』 卷4, 「墓誌」. “及長, 志氣豪邁, 武藝超絕, 眞射御不違之君子也. 人皆曰: “能繼曾王考之業.” 僉知公亦勸之武, 公曰: “士之立身揚名, 不在於武, 而在於書.””
- 5) 이 상소문은 松亭 河受一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 『辨誣』라는 책에 「幼學 鄭誼獨疏」라는 제명으로 실려 있으며, 말미에 “辛亥八月十六日”라 한바 1611년 8월 16일에 올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 상소에 대해서는 『광해군일기』를 비롯하여 『학포집』에서도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김익재가 정인홍에 대한 정훤의 입장을 논하며 이 자료에 주목하고 일부를 번역·소개하였는데, 필자 또한 이 선행 연구를 통해 이 자료의 존재를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었음을 밝힌다. 김익재, 「來庵 鄭仁弘의 現實對應과 그 門人集團의 師承意識」,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p.165-168.

런데 永昌大君이 피살되고 이에 상소한 鄭蘊이 유배를 당하는 데 이어 소위 폐모론이 대두되는 일련의 사건을 지켜보며 정훤은 정인홍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그 상징적인 행위가 정인홍의 거처가 있던 가야산 어귀의 돌다리에 ‘誓不復渡此橋’ 여섯 글자를 새긴 것이다. 仁穆大妃의 폐출이 결정된 1618년 정훤은 부친상을 당하는데, 삼년상을 마치자마자 고향 합천을 떠나 용문산 인근으로 이주하고 다시 두 해 뒤에는 선영이 있던 단성으로 거처를 옮긴다. 이에 대해 정훤의 생애를 정리한 글편들은 혈뜻는 말이 심해서 또는 정인홍의 집과 가까워서 그것을 피해 이사를 간 것이라 적고 있다.⁶⁾ 이때 혈뜻는 말이란 스승 정인홍을 지지하지 않는 데 대한 비방일 터, 인조반정이 일어나기 전 두 차례의 이주는 어찌됐든 정인홍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겠다.⁷⁾ 정인홍이 참형을 당한 뒤에도 그와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난데없이 서울로 끌려가 추국의 대상이 되었던 바 있기도 하거니와,⁸⁾ 교유했

6) 鄭暄, 『學圃集』 卷4, 「行錄」. “三年之外歸家, 不日遂入龍門之下, 愛其山水幽深奇秀, 可以棲遁, 挈家眷, 卽往卜築. 因與謝絕交遊, 而嚚嚚之謗, 若將浼焉. 不數年, 又爲移卜于丹邱, 避地計也.”; 鄭宗魯, 『學圃集』 卷4, 「行狀」. “由是, 北黨爭咻, 去益嚚嚚, 公奉親挈眷, 隱於龍門山, 猶嫌其去弘不遠, 轉徙丹城之古里.”; 李時績, 『學圃集』 卷4, 「墓誌」. “遂棲遁於龍門之下, 龍門之距鄒山咫尺, 而金墉幽囚, 又出鄒山, 遂移卜於丹城之舊鄉.”

7) 참고로 이에 대해 정훤이 직접 발언한 바도 있다. 정훤은 1633년 소위 林碩幹 고변 사건 때 의금부로 압송되어 국문을 당하는데, 이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 몸은 본디 합천에 살던 사람으로 정인홍이 국문을 이끌 때 곧장 피신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때 단성현의 선비들만이 정인홍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아 근방에서 가장 거주할 만하였으므로, 경신년(1620) 8월에 가솔들을 이끌고 단성현으로 이주하였사온데 (후략)[矣身本以陝川居生人, 當鄭仁弘主張大論之時, 卽爲避地之計. 其時, 丹城縣士夫, 獨不撓於仁弘之勢焰, 在近邑最爲可居乙仍于, 庚申年八月分, 挈家移居同縣爲白有如乎, (後略)]”라고 한 것이다(『推案及鞫案』 冊5, p.427).

8) 위에서 말한 입석간 사건에 연루된 일이다. 1633년 3월 15일에 의금부에서 추국을 받았으나 곧 무혐의로 풀려나 진주로 돌아왔으며, 이때 겪은 일을 정리하여 『癸酉

던 인물들도 정인홍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바 그의 삶에서 정인홍이라는 존재는 빼놓을 수 없다 할 것이다.⁹⁾

또 정훤은 南冥의 사숙인이자 來菴의 동향문하인으로서 서부 경남에 기반한 남명학맥의 주요 인사들과 폭넓은 교유를 맺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朴綱, 河弘度, 姜大遂 등과 두터운 친분을 쌓았다. 지우들과의 교류를 얼마나 중시하였는지 임종 직전 병이 심해져 자제들이 그 만 손님을 사절하고 요양을 하시라는 청에도 그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던 그였다. 그래서인지 그의 만장과 제문 등을 지은 인물은 줄잡아 47명에 이른다. 그가 당시 경남 지역 문인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위상을 짐작케 하는 부분인데, 이 또한 남명학통의 유력한 학자로 손꼽혔다는 사실과 함께 그를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라 하겠다.

정훤은 자신의 8대조이자 東方理學의 필두로 꼽히는 정몽주를 배우

變後偶記」(『학포집』 권2)라는 제목의 글을 짓기도 하였다.

- 9) 단 정훤이 정인홍과 사제의 연을 끊고 피했다는 『학포집』의 기록이 반드시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포집』에 실린 글들이 조작되거나 특정한 의도 아래 지어진 경우가 감지됨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일례로 정훤이 정인홍의 옛집을 지나다 지었다는 시 「過仁弘故居」는 정훤의 절친한 벗이자 후일 그의 사위가 되기도 하는 姜大遂의 「過鄭破宅」(『寒沙集』 卷2)을 베껴다 넣은 것이다. 또 정인홍과의 절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언급되는 예의 ‘六字誓’는 가장 이른 생애기록물이자 정훤과 생전에 직접 교유를 맺었던 사람이 쓴 유일한 기사인 「墓誌」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익재, 구진성 등은 인조반정 이후 정인홍의 문인들이 그와 연루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써 적극적인 거리두기 작업이 실행된 결과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통찰력 있는 분석이라 생각한다. 다만 정훤 스스로 정인홍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것은 실로 확인되는 것이기도 한바, 문집 편찬 과정에서 실행된 작업의 성격은 날조라기보다 강화 내지 부각이라고 보는 편이 온당하겠다. 관련하여 다음 두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김익재, 앞의 논문, pp.105-181; 구진성, 「仁祖反正 直後 來庵 鄭仁弘 門人들의 不安 要因과 對應」, 『남명학연구』 제37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3, pp.204-210.

겠다는 뜻으로 호를 學圃라 하였다. 그의 문집 『學圃集』은 그가 죽고 200년도 더 지난 1859년에 비로소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이때 제작한 목판이 1906년에 화재로 소실되자 1956년에 다시 목활자로 『학포집』을 제작하였다. 처음 만든 목판은 불타버렸지만 그것으로 인간한 책은 남아있어 1993년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에서 영인하여 학계에 제공하였으며,¹⁰⁾ 현재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목활자본은 한국역대문집총서 2172호로 영인되어 있으며, 그대로 한국역대문집DB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백년 상간에 나온 두 판본은 거의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기도 한다. 뒤에 나온 목활자본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글자 수준의 교정을 시도한 것이 간혹 보이지만 ‘學問’을 ‘學文’으로 쓰는 따위의 단순실수도 종종 발견되어 썩 신뢰할 만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또 간혹 누락한 작품이 있고 드물지만 특정 문구를 삭제한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초간목판본에는 없으나 재간목활자본에 새로 들어간 것이 있는데, 바로 말미에 붙어 있는 「年譜」이다. 작성 주체가 확인되진 않지만 기존 부록에 실려 있던 「行錄」, 「行狀」, 「墓誌」, 「墓表」에 나오는 여러 정보와 저술시점이 확인되는 작품 등을 연도별로 배열하여 정리한 것으로, 정훤의 생력을 일람하기에 용이하다.

초간목판본을 기준으로 『학포집』은 4권3책 분량이다. 권1에는 총 64제의 시를, 권2에는 19통의 서간과 4편의記를, 권3에는 祭儀와 관련된 2편의 글과 10편의 祭文을 수록하고 있다. 권4는 부록으로 정훤 관련

10) 허권수 해제·연구소 자료, 「影印資料『學圃集』」, 『경남문화연구』 제15호,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1993, pp.137-218.

비지전장류 및 그에 대한 만장과 제문 등을 모아 실었다. 재간목활자본은 5권 체제를 취하여 작품 분속을 부분적으로 재편하는 등 나름의 정비가 시도되었으나, 편지를 잡저에 넣는 등의 오판이 있고 수편의 시와 「居喪雜儀」 등의 작품을 빠뜨린 점으로 보아 재간 과정을 통해 편집의 품질이 나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이상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초간본을 대본으로 삼고 재간본은 필요한 경우 참조하기로 한다.

II. 「학포기몽」의 경개

『학포집』에는 두 편의 서문이 붙어 있다. 하나는 일가후손인 鄭煥翼(1819~?)이 쓴 것이고, 다른 하나는 李種祥(1799~1870)이 쓴 것이다. 두 서문은 글의 질감이 서로 다르긴 하나 정현의 사람됨과 지향을 드러내기 위해 동원하고 있는 질료는 크게 다르지 않다. 둘은 모두 먼저 정인홍과의 절교를 툴아 서술함으로써 그의 과단성 있는 처신과 성품을 예찬한다. 이어 정현이 쓴 「記夢」이라는 작품을 언급하는데, 이로부터 명나라의 쇠망 앞에 그가 품었던 비분강개함과 투철한 尊周攘夷의 의리 등을 읽어내며 그의 올바른 가치관과 확고한 지향을 드러낸다. 『학포집』을 통독한 두 사람이 공히 「기몽」 한 작품을 지목하고 있는 것은 분명 눈길을 잡는 대목인데, 이는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생각된다. 실로 이 작품이 정현의 글을 통틀어 가장 문제적인 까닭이다.

상기한 대로 작품의 제목은 꿈을 기록한다는 뜻의 「記夢」이다. 그런데 이 조어는 자신이 꾸는 꿈을 글감으로 삼는, 즉 기몽문학의 작품들이 보편적으로 취하는 제명이라 특정작품의 고유한 제목으로 사용하기에는 난

점이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정환의 「기몽」을 다른 기몽문학 작품과 구분해 칭하고자 작자의 호를 앞에 붙여 ‘학포기몽’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이는 일찍이 沈義의 「記夢」을 ‘大觀齋記夢’이라 일컫은 것과 같은 방식이며, 전통시대 夢記 작품들 가운데 작자 스스로 자신의 호를 앞에 붙여 제명을 삼은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바, 독단의 명명이라 할 것은 아니겠다.

앞서 말한 바 있듯 「학포기몽」은 그동안 거의 소개된 바 없는 생경한 작품으로, 먼저 작품의 내용을 개괄해 제시하기로 한다.

「학포기몽」은 정환이 진주 대평면 집에 있던 1638년 9월 2일 밤에 꾸 꾸 내용을 적은 형태로 되어 있다. 꿈속에는 두 명의 친구가 등장하는데 당시 평양과 남원에 임관해있던 曹挺立과 姜大濬이다. 두 사람은 큰 고을의 사또인 만큼 수많은 종자를 거느리고 성대한 모습으로 이르지만 무언가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¹¹⁾ 조정립이 정환에게 말을 걸어 한 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뒤, 정환은 강대수의 모자를 보고 매만지며 그에게 어디서 난 것이냐 묻는다. 이로부터 정환과 강대수 사이의 긴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 부분이 이 작품의 핵심이자 나머지 꿈 내용의 전부이다. 서술이 꽤 상황하지만 요지는 복잡하지 않은바,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줄거리를 정리하여 보인다. 작품은 정환의 입장에서 1인칭 서술로 쓰여 있지만 여기선 이해를 돕고자 각자의 이름을 밝혀 적는다.

11) 鄭暄, 『學圃集』卷2, 「記夢」. “大明崇禎十一年戊寅, 余病臥晉西大坪江舍, 秋九月初二日夜, 夢遇兩人, 其一平壤庶尹曹以正也, 其一南原府伯姜學顏也. 其威儀烜赫, 驕從甚盛, 而兩人形顏沮喪, 無異於澤畔之憔悴矣.”

정훤이 강대수를 돌아보니 그는 머리에 毛冠을 쓰고 있다. 정훤이 어디 서 난 것이냐 묻자, 강대수는 명나라에서 나는 것으로 儒者들이 쓰는 것이며 정축년(1637) 이전에 얻어 오늘에 이르러 더욱 보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 답한다. 그러자 정훤은 안색을 고치고 앉아 명나라 의관을 오늘 이후로 다시 볼 수 있을까 말한다.

이어 정훤은 강대수에게 근래 관의 교지를 보니 良馬를 뽑아 징병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던데, 징병이란 청나라에 징집되어 명나라 공격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묻는다. 강대수가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자, 정훤은 강대수가 호남의 큰 고을을 맡고 있으니 능히 직임을 다할 수 있겠느냐 묻는다. 그러자 강대수는 발끈 화를 내는데, 청나라에 戰馬를 바치는 것을 두고 어찌 ‘盡職’이란 말을 쓸 수 있느냐, 자신을 모르는 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대가 어찌 이런 박한 말을 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정훤은 盡職의 도를 설명해보겠다는 말을 시작으로 장황한 논설을 펼친다. 요는 청나라에 원병을 파견하는 것이 춘추의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재 국력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어불성설인데도 조정 신하들은 권력을 다투느라 백성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직간을 하여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바로잡음이 직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강대수는 오활한 말이라 하며 세자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아 무턱대고 高論大言만 내세울 때가 아니니 깊이 생각하라 충고한다.

이 말에 정훤은 다시 두 번째 논설을 펼친다. 역사의 전례를 다단하게 들 어가며 청나라가 인질을 함부로 해칠 수 없는 까닭과 화친의 부당함을 말 하고, 우리나라가 비록 작지만 상하가 합심하고 와신상담의 자세로 국력을 함양해 이 상황을 타개해가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그리하여 청나라의 파 병 요구를 거절하고, 서쪽으로 靉島의 명나라 장수와 연대하고 동쪽으로 대마도의 왜병을 청하여 세 나라가 힘을 합해 청나라를 공격하면 명나라 군대와 몽골의 병사들도 잇달아 일어날 터이니, 인질로 잡혀간 이들도 필 시 무사히 구출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말이 끝날 즈음 정훤은 꿈에서 깨어나고 “깨어있을 때도 어리석더니 꿈에서도 어리석다. 틀림없이 낮이라면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밤에는 귀신들의 웃음거리가 되겠구나.”라며 스스로를 경계한다. 그러고는 꿈에

본 두 사람은 자신의 오랜 벗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꿈에서 동시에 만났으니 神交라 할 만하다며 기이한 일이라 감히 기록한다는 말로 글을 맺는다.

「학포기몽」에 서술된 꿈의 내용은 특별한 시공간적 이동이나 사건의 진행 없이 인물간의 문답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그 대화의 내용을 살핌으로써 작품의 주지를 어렵지 않게 추출해볼 수 있다. 특히 위에 따로 정리한 강대수와와의 대화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겠는데, 그 대지는 ‘反淸復明’이라는 한 마디로 수렴된다.

이러한 뜻은 강대수의 모관을 어루만질 때부터 드러난다. 강대수의 말에서 정축년 이전이라 함은 조선이 청나라의 무력에 굴복하기 전을 가리키며, 곧 조선의 입장에서 중화적 세계관의 균열을 실감하지 않았던 또는 아직 춘추의 의리가 붕괴되지 않았던 시간이다. 정현이 이것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자문하는 것은 전복되어 버린 華夷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을까 탄식하는 것이라 읽음이 합당하다. 이렇게 문득 노출된 정현의 지향은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더욱 강렬하게 제시된다. 사실 말이 대화이지 정현의 일방적인 논설에 가까운데, 두 차례에 걸친 논변은 복잡하고 장황해 보이지만 핵심은 명징하다. 청나라의 조선군 파병 요구는 결코 들어줄 수 없는 일이며 나아가 국력을 키우고 주변국들과 협제하여 청나라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이유는 조선의 백성을 살리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 중화적 세계질서를 회복·재건하기 위함이다.¹²⁾ 실로 당시 유가지식인의 세계관 속에서 正道에 합당하며,

12) 『학포집』의 서문을 쓴 두 사람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 작품의 주지와 의미를 짚은 바 있다. 鄭煥翼, 『學圃集』卷1, 「學圃先生集序」. “及其椹島之役, 先生慨然有風泉之感, 因術「記夢」一篇, 大要皆尊攘之義, 恢復之計也. 噫! 宋社旣屋, 謝翺羽以臨安遺民, 作「西臺慟哭記」, 以寓其慷慨悲憤, 此實秉彝之衷也. 夫身事本朝, 目格淪喪,

志士로서의 강개한 뜻이 온축되어 있는 주장이라 하겠다. 또 위에선 골자를 보이려고 내용을 줄였지만 자신의 주장을 실현할 방안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일지사의 원대한 경략이라는 표현도 붙임직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보면 정훤의 주장은 시골 선비의 오활한 생각에 다름 아니다. 이를 입증하고자 구대여 당시 청나라의 강성한 군사력을 들먹일 것도 없다. 정훤이 손을 잡자는 靉島는 이미 1년 반 전에 청군에 함락되었으며 그곳을 지키던 明將 沈世魁도 그때 전사를 한 터였다. 대마도에 있는 왜병과 손을 잡자는 주장은 더욱 어리둥절하다.¹³⁾ 불과 수십년전 중국에 대하여 스스로를 東皇帝라 칭하고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假道]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을 침공했던 일본이다. 그들에게 중화질서의 회복이 함께 군사를 일으킬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부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어 조선-가도-대마도로 이어지는 연합군으로 청나라에 항거하면 명나라의 본군과 위로 몽골까지 들고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 또한 실제의 형편과는 맞지 않는다. 당시 소위 獐子, 즉 몽골의 후예들은 명나라의 서북방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거니와, 청나라와는 오히려 강화 내지 귀순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¹⁴⁾ 이런 등으로 보건대 정훤의 꿈에 담긴 생각은 당시

則其激切哀傷，猶之可也。先生以東土之人，踪跡未嘗及天子之庭，而獨以春秋之義，至發於夢想，凜然有魯連子踏海之志，視翺羽，不亦遠乎？”；李鍾祥，『學圃集』卷1，「學圃先生集序」。“又嘗慨然有匪風寒泉之思，至發於夢想，而設爲問答，以泄其悲憤之氣。”

13) 참고로 『학포집』의 재간목활자본에서는 일본과의 연대를 언급한 부분—“東請馬島之倭兵，三國”이 삭제되어 있다. 편집·교열의 과정에서 이 대목이 정훤의 학문과 위인을 현창하는 데 부적절하다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14) 정훤이 이 꿈을 꾸기 한 달 전, 인조는 심양에 끌려갔다가 잠시 조선에 나왔던

국제 정세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분석에 기반한 것이라 하긴 어렵다. 꿈속의 강대수가 그의 말을 듣고 “죽하께서 강호에서 늙어가느라 세상에 소원하여 생각하는 바가 오활한 듯하다”¹⁵⁾라고 한 것이나, 정훤이 꿈을 깨고 나서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한 것 등은 이러한 지점을 짚은 것일 터이다.

단 이를 마냥 무지의 소치라 치부할 것은 아니다. 앞서 짚은 사안들을 정훤 또한 모르는 바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쓴 시가 이미 있고,¹⁶⁾ 왜란을 직접 경험하고 시세를 기만하게 파악했던 그로서 일본의 야욕을 모른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꿈을 꾸는 것은 尊周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의 비분과 신념이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강하게 표출된 결과라 할 것이다.

작품 자체의 문면만으로 수립할 수 있는 해석은 이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다. 이 글을 쓴 이유이다. 말했다시피 정훤은 꿈속에서 자신의 강고한 입장을 설파하지만 꿈을 깨고 난

朴魯를 만나 청나라 동정을 묻는데, 박로는 “漠北의 여러 胡族들이 모두 그 나라에 붙었고 (중략) 魚皮 獐子도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귀순하니 대저 위엄이 막복에까지 미쳤습니다.”라 대답한다. 실제로 몽골은 1626년 즈음 호르친을 비롯한 여러 부족이 후금에 투항·귀순하였고, 이후 후금과 대치하던 릭텐 칸이 1634년 사망하면서 남몽골은 후금에 복속되었다. 물론 조선의 조정은 위의 대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위에서 거론한 인조와 박로의 대화는 『인조실록』 권37, 1638년 8월 4일조 및 『승정원일기』 책66, 동일자에 실려 있다. 17세기 초 몽골과 후금의 대치상황에 대해서는 Ts. 채렝도르지, 「몽골제국 시대 이후 몽골이 아시아의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아시아문화연구』 제41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112-113을 참조할 것.

15) 鄭誼, 『學圃集』 卷2, 「記夢」. “學顏曰: “足下, 老於江湖而疎於人世, 其所料量, 則似迂矣.””

16) 『學圃集』 卷1에 실려 있는 「聞樞島破軍」이 그것이다.

뒤 그것이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정환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 자신의 오활함을 내보이고자 이 글을 썼단 말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어리석다 자탄하고 말았지만 내심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III. 창작의 배경과 동기

먼저 「학포기몽」이 지어진 배경에 대한 오인을 바로잡고 가야겠다. 오인의 빌미는 정환익이 제공했다. 그는 『학포집』의 서문에서 이 작품을 거론하며 그 첫머리에 “가도의 역에 이르러[及其椶島之役]”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로 인해 「학포기몽」은 “가도를 정벌하기 위해 청나라가 조선에 군사를 요청했다는 말”을 듣고 쓴 것으로 이해되었다.¹⁷⁾ 그러나 이는 정확한 말이 아니다.

물론 가도 정벌을 위한 청나라의 징병 요청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조가 남한산성을 내려올 때 청태종으로부터 이제 가도를 공격할 것이니 전함과 수군을 지원하라는 강요를 받았고,¹⁸⁾ 이에 조선은 林慶業을 수군장으로 삼아 지원군을 보냈다. 주지하듯 이때 임경업이 가도의 수장 심세괴와 은밀히 통신하며 정보를 미리 빼주기도 하였으나, 가도는 1637년 4월 9일에 함락되고 만다.

문제는 이 뒤로도 청나라의 징병 요구가 집요하게 이어졌다는 것이

17) 강동욱, 앞의 논문, p.175.

18) 『仁祖實錄』卷34, 1637년 1월 28일조. “朕今回兵, 攻取椶島, 爾可發船五十隻, 水兵·槍砲·弓箭, 俱宜自備.”

다. 명나라와의 전투에 동원하기 위함인데, 실로 조선 조정은 그 해 여름부터 해를 넘겨서까지 이 助兵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인조는 崔鳴吉을 심양에 보내 조선의 어려운 국력을 들어 사정을 참작해줄 것을 호소하며 시간을 끌었으나, 1638년 7월말 청태종으로부터 질책의 서찰을 받기에 이른다. 내용인즉, 지난해 최명길의 표문을 보고 조선군의 징병 숫자를 5,000명으로 삭감해주었음에도 왜 군사를 보내지 않느냐는 것이다.¹⁹⁾ 이에 조선은 부랴부랴 李時英을 총독사로 삼아 파병 준비를 하고 이를 청나라에 보고한다. 이때가 1638년 8월 상순계이니, 「학포기몽」에서 말하는 청의 징병 요구란 이 일련의 사건을 이룬 것이다.

청나라의 성화에 끝내 파병을 결정하고 나서는 이에 대한 상소도 이어졌다. 申冕이 그 부당함을 지적한 데 이어²⁰⁾ 館學의 유생 42명이 함께 청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지하라는 소를 올리기도 하였던 것이다.²¹⁾ 정헌이 「학포기몽」의 계기가 된 꿈을 꾸는 것은 이로부터 약 한 달 뒤인 9월 2일이다. 그 대지 또한 위의 상소 내용과 맥이 닿아 있는바 정헌의 생각은 당시 사대부 사회의 여론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겠다. 그런 가운데 정헌의 주장에 눈길을 끄는 점도 있는데, 파병의 부당함에 대해 펴는 논리가 다른 상소에 비해 펴 탄탄하다는 것이다.

지금 듣기로 청나라는 다시 병사를 움직이며 우리나라 군사를 5,000명도 넘게 징발한다는데, 장차 그 이웃나라를 치려는 것인가? 大明을 범하려는

19) 『仁祖實錄』 卷37, 1638년 7월 24일조. “上年, 朕覽謝恩陪臣崔鳴吉齋來表文, 朕亦軫念其力微, 徵兵自當量時勢降勅. 與崔勅中, 曾有絕免徵兵之言乎? 朕以民苦依前, 詔減其兵數, 命英俄兒代·馬夫達, 諭謝恩陪臣申景禎, 止發五千兵, 留屯安·義之間, 聽調兵旨則即來, 今反以朕爽信不能踐言而強辨, 朕果有不踐言之處乎?”

20) 『仁祖實錄』 卷37, 1638년 8월 1일조.

21) 『仁祖實錄』 卷37, 1638년 8월 9일조.

것인가? 만약 대명을 범하면 이 어찌 참을 수 있으리오? 우리나라의 난처함은 전에 비해 만의 만 배나 되고, 국력이 버터내기 어려움은 실로 논할 것도 없다. 설사 그 이웃나라를 치려하는 것인들, 지금의 나라 형편으로 군대를 내고 나서 다시 군량을 댈 수 있단 말인가? 아! 지난해 牛疫으로 백에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고, 올해는 기름과 폭염이 온 나라를 덮쳐 양곡이 떨어졌다. 저 무지한 소민들은 말할 바 못 되나 그 가운데 사대부로서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적국의 왕에게 분개하거늘, 어찌 만만리 이국땅으로 쌀을 운반하여 군대 앞으로 군량을 보급할 수 있겠는가?²²⁾

정훤은 대명의리만 내세우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국력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짚는데, 요는 5,000명의 군사를 보낸다 한들 군량을 보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적하는 것이 작년 전염병으로 군량을 나를 소가 거의 다 죽어나갔고, 올해는 흉년이 들어 양곡 자체도 없다는 것이다. 정훤의 생각이 마냥 오활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싶은 대목인데, 관련하여 같이 볼 자료가 있다.

또 군사가 출행할 때에 군량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바이지만 소방의 군사는 굶주림을 가장 견디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5천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수천 리를 행역하려면 의복과 무기를 전사들로 하여금 지고 가지 않게 해야 하는데, 물건 수송하는 장비가 매우 부족하고 군량으로 말하면 더욱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신은 몹시 민망스럽습니다. 소방은 불행히도 금년에 재앙이 더욱 혹심하여 함경도는 기근과 열병으로 거의 죽고 三南은 전에 없었던 한재로 추수할 것이 없어 大命이 중지되기에 임박하였습니다.

22) 鄭暄, 『學圃集』卷2, 「記夢」. “今聞清國復爲動兵, 徵我國軍五千有餘, 其將伐其類國乎? 其將犯於大明乎? 若犯大明, 則是可忍乎? 我國之難處者, 比前萬萬矣; 國力之難堪, 固不暇論也. 設使伐其類國, 以今國勢, 旣出其軍, 又繼其糧乎? 噫! 前歲牛疫, 百無存一, 今年早災, 八方皆然, 民天絕矣. 彼蔑識小民之輩, 不足言, 其間士夫之稍有知識, 敵王所懷者, 其能運米於萬萬里異國, 繼糧於軍前乎?”

(중략) 전쟁을 치른 나머지 재앙과 염병이 거듭되어 소가 이미 다 죽고 말도 살아남은 것이 드물어 사신 왕래와 특산물을 진상할 때에도 항상 수송하기 어려운 걱정이 있는데, 더구나 군량을 천 리나 수송하길 바라겠습니까. 온갖 계책이 막연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편은 조정에서도 잘 아는 바이니 형세를 헤아려 구체해 주소서. 삼가 황제의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²³⁾

청태종의 질책에 못 이긴 조선이 파병을 결정한 뒤 청나라에 보낸 奏文의 일부이다. 서북 지역 병사를 동원하여 보내기로 하였음을 알리는 한편 요구한 그대로 즉각 군대를 보내지 못한 연유를 해명한 것인데, 그 내용이 정훤이 지적한 바와 거의 일치한다. 정훤은 당시 국내 사정을 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학포기몽」을 통해 볼 수 있는 정훤의 생각과 대응책이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청나라의 위세에 굴복하고 자신들의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조정 대신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요, 이런 위기상황에서 목숨을 내걸고라도 국왕에게 바른말을 하여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것이 신하로서의 직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준엄한 일갈이다. 이는 결정된 결과만 보는 재야의 선비로선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정치일선에 있는 인물이 듣기에는 적의 황당한 말이었을 것이다. 당시 조정은 인조를 비롯하여 여러 신하들이

23) 『仁祖實錄』卷37, 1638년 8월 10일조. “且師行糧從, 勢所固然, 而小邦兵民, 最不耐飢. 習性如此, 發兵五千人, 行役數千里, 衣裝·器械, 不可令戰士擔負而行, 則輸資之備, 已爲不貲, 至於糧餉, 尤無可致之策, 臣竊悶焉. 小邦不幸, 今年災禍尤酷, 咸鏡道飢饉癘疫, 死亡殆盡, 三南旱荒, 前古所無, 秋穫既失, 大命近止. (中略) 兵禍之餘, 重以災疫, 牛既盡斃, 馬亦鮮存, 往來使臣, 進貢方物, 每有難運之憂, 況望其千里轉餉乎? 百計茫然, 罔知攸出. 凡茲事狀, 莫非朝廷所洞燭, 量勢垂濟, 恭候皇命.”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를 따름.)

대의명분과 현실적 압박 사이에서 나름의 고민과 분투가 있었거니와, 파병을 결정하고 난 뒤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탄을 금치 않았기 때문이다.²⁴⁾ 꿈속에서 강대수가 쉽게 거창한 말만 외칠 계제가 아니라 정훤을 나무라는 것은 이러한 이유일 터이다.

또 강대수의 말을 받은 정훤의 두 번째 논설 또한 논리가 그럴싸하나, 당시의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말이다. 강대수의 지적은 인질로 잡혀 있는 昭顯世子 때문에 내키는 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과 국력을 고려하지 않고 화친 제의를 가볍게 거절한 것을 온나라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훤은 項羽가 劉邦의 부친과 처를 인질로 삼았으나 해하지 않았던 史實을 끌어와 청나라 또한 소현세자를 함부로 할 수 없거니와, 국력이 약하다 하나 옛날 하나라의 少康은 1成의 땅, 1旅의 군사, 1인의 걸출한 신하만으로도 禹의 치적을 회복했다며 조선 또한 自強에 힘을 쏟아야 함을 역설한다. 이어 전술했듯 가도, 왜 등과 군사적 연대를 하여 기병하면 명나라와 몽골의 호응을 얻어 청나라를 물리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를 두고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과 국제정세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찰력 있는 해법이라 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 괴리, 즉 상황 인식은 대단히 현실적이나 그에 대한 대책은 그렇지 못한 이 불균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에 대한 이해으로부터 「학포기몽」을 지은 동기를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실마리는 정훤의 삶 속에 있다.

모두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듯 정훤은 일생동안 고향 근방을 크게 벗

24) 『仁祖實錄』卷37, 1638년 8월 19일조에 기록된 講筵을 마치고 인조와 李景奭, 李時白 등이 조병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단적인 예이다.

어나지 않고 살며 출사를 하지 않은 인물이다. 물론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다. 그의 생애를 기록한 문건들은 이것을 학문에 대한 투철한 지향 때문이라 서술하고 있지만, 실상 이는 자의반타의반의 선택으로 보인다. 20세에 과거공부를 접고 경학에 몰두한 것이나 폐모론이 불거질 당시 출사의 뜻을 거둔 것이야 본인의 뜻이었겠지만, 정인홍과 관계를 끊은 이후 용문산, 단성, 진주 등지로 이주한 것은 피동성이 농후한 것이다. 또 정권이 바뀌어 정인홍이 참형을 당한 뒤로 중앙조정으로부터 강우지역 사람이 정인홍의 잔존세력으로 지목되는 현실, 특히 1633년 3월 임석간 고변 사건 때 무고를 당해 한양으로 끌려가 추국을 당한 경험은 그로 하여금 일말의 출사 의지조차 접게 만들었다. 50대에 접어들어 두 차례나 벼슬이 내려졌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력의 영향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타의반을 강조하는 이유는 더 있다. 정훤은 결과적으로 시종 은거의 삶을 살았지만, 애초 탈세적 경향에 무르짖어 있었다거나 은거로만 치우친 출처관을 갖고 있었던 인물은 아니었다. 선비라면 마땅히 출사하여 임금을 섬기며 본분을 다해야 함을 자제들에게 말한 적도 있거니와,²⁵⁾ 그 자신 시대를 아파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范仲淹의 「岳陽樓記」에 나오는 ‘先憂後樂’을 입에 달고 살았던²⁶⁾ 까닭이다. 이러한 면모는 爲己之學을 강조하며 학문에 침잠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배운 바를 세상에 펼쳐야 한다는 士로서의 의무감을 분명히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자신의 형편상 이를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25) 鄭暄, 『學圃集』 卷4, 「行錄」. “顧謂諸子曰: “經綸大業, 雖不可妄許, 平居則事君不欺, 見危則盡忠授命, 將不效偷生冒錄, 上以負君父, 下以負所學, 此吾志也.””

26) 鄭暄, 『學圃集』 卷4, 「行錄」. “若無意當世, 而傷時憂國之念, 猶眷眷于中, 或於中夜起坐, 因誦范希文先憂後樂之語.”

傷時憂國의 정념을 늘 갖고 있으며 당세의 현실정치에는 거리를 두어야만 했던 그의 처지는 그의 시문들에도 흥미롭게 반영되어 있다. 탈세·은거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시들이 다수 보이는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자신의 본래 취향이라기보다 그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것처럼 읽히는 구절이 더러 눈에 띄는 것이다. 이를테면 “끝내 마땅히 圃隱을 배우며 선조의 뜻을 따르리니, 시절을 아파하며 눈물로 옷자락을 적실 필요 없다”²⁷⁾나 “예로부터 성인들도 곤액을 겪었나니, 장부가 하필 공연히 몸을 수고롭게 할 것 있는가”²⁸⁾ 등과 같은 시구가 그러하다. 아울러 시국을 염두에 둔 작품들이 간혹 보이기도 하는데, 이 또한 여러 이유로 출사의 뜻을 접고 정치일선과 철저히 벽을 쌓아 올렸지만 학자로서 현실인식과 그에 대한 정서적 호흡만큼은 놓지 않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 가운데 국내의 정치현실을 직접 겨눈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로 그의 시 가운데 시대현실을 우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작품들은 유독 명칭 교체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다.²⁹⁾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정인홍과의 관계 때문에 피세적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발언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삼전도의 치욕이 있는 뒤로 그러한 의식이 문학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화의 배경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청의 위압과 인조의

27) 鄭暄, 『學圃集』 卷1, 「孤山弊廬二首」 제2수. “終當學圃追先志, 不必傷時淚濕裾.”

28) 鄭暄, 『學圃集』 卷1, 「次鄭上舍二首」 제1수. “賢聖古來猶見厄, 丈夫何必謾勞身.”

29) 鄭暄, 『學圃集』 卷1, 「聞椴島破軍」; 「次石洲韻」; 「偶次古人韻」; 「孤山弊廬二首」; 「詠雪」; 「偶吟二首」; 「閱秦皇記」 등을 들 수 있다.

항복, 그리고 명의 쇠망 등은 국가적 차원의 위기이자 당대 유학자로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던바, 蝸角 위 다툼 정도의 정치적 국면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요컨대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은 그로 하여금 비탄의 苦淚를 흘리게 하는 비극인 동시에 그가 쌓아온 경륜과 식견, 그에 바탕한 현실인식을 분출하게 하는 계기였던 것이다. 여러 사정으로 학문적 성취를 현실에서 펼칠 기회를 박탈 또는 스스로 외면하고 있었으나, 국가의 존폐 자체가 걸린 위기 앞에 그것은 일시해제된 것이라 하겠다.

청나라에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내면서도 실제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고담준론의 방안을 내놓는 불균형은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한다. 정철은 정국의 한가운데서 분주하는 현실정치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멀리 있으려 했던 또는 멀어져야만 했던 한 명의 학자였다. 그럼에도 전통시대 지식인이 으레 그러하듯 세상과 현실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인데, 덕분에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정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개의 방안과 논리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었던 정치현실과의 거리가 한계로 작용하였다. 하여 정무적 판단보다 학자로서의 원론을 강경하게 설파했던 것이며, 이는 곧 자신이 견고하게 지켜왔던 학자로서의 分과 시좌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날 밤의 꿈, 그리고 그 꿈을 글로 쓴 동기는 이 위에서 짚어져야 한다. 즉 현실회피적인 태도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처지, 그로부터 억제된 현실참여의 욕망, 그러나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의 도래, 그리고 학자로서의 자기인식과 표현의 충동, 이들의 접점에 「학포기몽」은 자리하고 있다. 스스로 분명한 입장과 나뉠의 탄탄한 학적 논리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실제의 논변으로 갈무리하지 않은 것은 오랜 원심적 처세의

그림자이라 할 것이며, 그럼에도 꿈을 계기로 삼아 자신의 생각을 세세하게 풀어낸 것은 정국의 차원을 넘어선 역사적 위기 앞에서 그동안 억눌러온 참여와 표현의 욕망이 터져나온 것이라 하겠다. 「학포기몽」은 당시 정권의 이러한 내면풍경이 흥미롭게 응고된 결과물인 것이다.

IV. 양식적 특징과 함의

또 하나 중요한 사안이 있다. 「학포기몽」의 양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요컨대 托夢이나 記夢이나 하는 것인데, 꿈을 문학적 장치로써 활용한 허구적 서사라면 夢遊錄 계열로 분류해야 할 것이고, 자신의 꿈 경험을 기록한 산문이라면 夢記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이 작품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먼저 「학포기몽」의 양식적 특징들을 따져 보자. 제목이 ‘記夢’으로 되어 있는 산문인바 일단 몽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꿈을 꾸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점, 1인칭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역시 몽기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³⁰⁾ 아울러 꿈의 내용이 유기적이고 긴밀한 서사적 결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以正(조정립의 자)이 나에게 말했다.

“성지역 근처에 좋은 땅이 있다고 들었네. 가서 집터를 잡을까 하는데, 자네가 함께 갈 수 있겠는가?”

나는 웃으며 말했다.

30) 몽기와 몽유록의 양식적 특징과 변별에 대해서는 앞의 줄고, pp.59-64 참조.

“공명의 굴레가 사람을 엮는 법이니 공은 필시 갈 수 없을 것이요 나는 누구를 따를꼬?”³¹⁾

이는 정환이 꿈에 들어 조정립과 강대수를 만난 뒤 먼저 조정립과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다. 정환이 여러 차례 이주를 하였고 평소 산수가 좋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욕망이 투사되어 있는 장면이라 읽을 수도 있겠다. 문제는 이 짙막한 대화와 뒤따라 나오는 강대수와의 문답 간에 마땅한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작품이 꿈이라는 장치를 빌려 자신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구축한 소위 탁몽서사라면 이 부분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장면인 것이다. 이를 들어내지 않고 그대로 적고 있는 것은 분명 자신의 꿈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몽기의 속성에 가깝다.

그러나 마냥 몽기로 볼 수 없게 하는 지점도 있다. 꿈 내용의 분량과 서술방식이다. 몽기는 꿈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꿈이란 깨고 나서부터 금세 그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해서 몽기는 길이가 그리 길지 않고 곳곳에 내용의 결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테면 어떤 부분에 이르러 ‘기억이 나지 않는다 [不記]’거나 ‘云云’이라는 표현을 쓰는 식의 서술이 자주 발견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포기몽」은 꿈의 내용이 드물게 긴 데다 어느 하나 부정확한 곳 없이 매끈하게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 작위의 혐의를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설령 이러한 내용의 꿈을 실제로 꾸었다손 치더라도, 기억을 기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편집과 가필을 훨씬 뛰어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31) 鄭暄, 『學圃集』卷2, 「記夢」. “以正甫謂余曰: “成基驛近境, 聞有好地, 余欲往卜, 爾能從之耶?” 余笑曰: “名繹能紉人, 公必不能往, 我誰從焉?””

또 꿈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도 요주의 대상이다. 「학포기몽」의 꿈은 청나라의 군사 지원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는 조정 대신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자신의 대응책을 역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통시대 문인들이 몽기로 기록한 일상적인 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반면, 현실에 대한 비판과 문제의 폭로 등을 위해 구사되었던 이 시기 몽유록과 친연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렇다고 이 작품을 몽유록 계열의 탁몽서사로 치부하기엔 꽤하지 못한 바가 있다. 몽유록과의 거리 또한 분명히 감지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몽기의 양식적 특질도 그러하지만, 그 밖에도 두 부분을 더 짚을 수 있다. 하나는 「학포기몽」은 철저하게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몽유록은 기본적으로 서사적 속성을 갖고 있으며, 별도의 몽유자를 설정하고 꿈을 통해 특정한 인물들을 소환하여 그들의 입으로 주제를 형상화한다. 현실세계의 문제적 상황을 폭로하거나 그에 대한 비판의식을 고양하는 등은 대개 등장인물의 언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元生夢遊錄」의 주지를 형성하는 것은 서술자인 元昊가 아니라 꿈에서 만난 단종과 사육신의 목소리이며, 「江都夢遊錄」도 꿈을 꾸는 淸虛가 아니라 꿈에 등장하는 십수명의 여인들의 하소연에서 메시지가 추출된다. 전란기를 지나며 활발하게 나오는 현실비판적 몽유록들 또한 거개 마찬가지이다. 그에 비해 「학포기몽」은 꿈에서 만나게 되는 조정립이나 강대수에게 적극적인 조명이 떨어지지 않는다. 몇 마디 말이 허락되긴 하지만 시종 정훤 자신의 논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훤이 꾀 솔직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물론 논설의 내용은 꿈의 그것이라고 보기 힘들만큼의 후작업이 수반되었다고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꿈 내용을 옹기고자 한

흔적이 보인다. 조정립과의 대화가 작품의 주지를 형성하는 데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하지 못함에도 빠지지 않고 기술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거니와, 가도의 明將과 군사적 연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임은 꿈을 꾀 즉시 스스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미 한 해 전 가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비탄에 잠겨 시를 지었던 그이기 때문이다.³²⁾ 만약 정환이 꿈이라는 서사적 장치를 빌려 자신의 주장을 정밀하게 담아낸 것이라면 이러한 대목은 삭제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노출해 적는 것을 택했다. 이 또한 이 작품을 탁몽서사로 확정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몽기와 몽유록 어느 한 곳으로 쉽게 밀어 넣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양보할 수 없는 사실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보자. 정환이 애초 이러한 내용의 꿈을 꾸었고 그 꿈 경험을 계기로 이 작품을 썼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전술한대로 기몽의 표지가 여럿 보이고 문집에서 그가 지은 記夢詩도 확인이 되는바³³⁾ 자신의 꿈을 글감으로 삼는 것이 생소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는 까닭이다. 관련하여 그가 교유했던 또는 존경했던 문인들 가운데 기몽문학 작품을 다수 남긴 인물이 더러 있다는 것도 이러한 추정에 힘을 보탠다.³⁴⁾ 따라서 「학포기몽」은 기본적으로 기몽문학의 자장에서 탄생한 것이라 봄이 합당할 것이다.³⁵⁾

32) 앞서 언급했던 「聞榼島破軍」이라는 작품이다.

33) 『學圃集』 卷1, 「夢遇沈伯玉」.

34) 절친했던 친구 가운데 河弘度가 대표적이며, 그의 문집 『謙齋集』에는 17수의 기몽시와 2편의 몽기가 시려 있다. 또 정환은 權驪의 시에 차운한 작품을 여럿 지었던 바 그의 시를 꽤 애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또한 18편의 기몽시를 지은 바 있으며 그의 문집 『石洲集』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5) 정환익은 「學圃先生集序」에서 「기몽」을 두고 ‘述’하였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그

하나 한편으로 자신이 꾸 꾸를 읊겨 적었다고 하기엔 지나치게 정교한 논의가 몽기의 통상적인 특징과 배치되며, 그 내용 또한 몽유록의 문제의식과 연맥을 갖고 있음을 외면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비로소 「학포기몽」의 양식적 위상을 온전하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 난관을 풀기 위해선 한 발 물러서서 이 작품의 전후를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목할 것은 몽기이다. 몽기는 16세기에 접어들며 문인사회에서 자주 지어지기 시작하고, 17세기 후반을 지나 18세기로 들어서면서부터는 만연하게 유행하며 수많은 작품이 산생되었다. 이러한 조류 속에 몽기는 폭넓은 창작 및 향유의 기반을 갖게 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양식적 실험과 확장이 시도된다.³⁶⁾ 이 가운데 「학포기몽」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이 ‘논변형’의 몽기이다. 논변형 몽기란 “꿈을 기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발판 삼아 자신의 논술을 펴는”³⁷⁾ 형태의 작품군을 일컫는 것으로, 대개 꿈을 적고 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나 그 징험을 후기로 적어 갈무리하는 전통적인 몽기의 문법과는 달리, 꿈을 통해 상정된 주제에 대한 저자의 생각, 입장, 의론 따위가 두드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글의 무게중심이 꿈의 내용보다 그로 인해 촉발된 논변에 놓여 있는 것인데, 이러한 속성이 「학포기몽」과 대단히 흡사하다.

다만 「학포기몽」을 곧장 논변형 몽기로 배속시키기에 앞서 짚어둘 것이 있다. 논변형 몽기는 대개 꿈을 통해 얻은 주제에 대한 논술을 후

또한 이 작품을 허구적 창작이 아니라 꿈 경험의 記述로 보았음을 말해준다.

36) 이에 관해서는 앞의 줄고, pp.142-211 참조.

37) 위의 논문, p.179.

기를 통해 개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꿈 내용 자체에 손을 대며 자신의 주장을 서술한 「학포기몽」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건대, 「학포기몽」은 후대의 논변형 몽기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형태와 문법이 독특한 한 사례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러한 양식적 위상이 갖는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하나의 질문을 더 해보기로 한다. 정훤은 어떻게 이런 형태의 작품을 짓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학포기몽」 창작의 내외적 동기를 온전하게 고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학포기몽」이 논변형 몽기의 자질을 갖고 있다 하였으나, 그 주제의 식이나 술몽부에 적극적인 가필이 이루어진 점 등은 아무래도 몽유록 전통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실로 정훤은 관계 맺고 있는 문인들을 통해 기몽적 글쓰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몽유록 계통의 작품 또한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정훤이 살았던 시기에 그의 생활근거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두 편의 몽유록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바로 「琴生異聞錄」과 「龍門夢遊錄」이다. 먼저 「금생이문록」은 선산 출신인 崔暉(1563~1640)이 1591년에 지은 것으로, 정몽주를 비롯하여 吉再, 金宗直 등 선대의 영남 名儒들을 꿈에 만나 가르침을 듣는 내용이다. 합천, 진주 등지와 선산은 거리가 있지만 이 작품은 최현이 지은 선산 지역 읍지 『一善志』에 수록되어 유통되었고, 특히 작품 기저에 정몽주를 학문적 종통으로 삼는 의식이 깔려 있는바, ‘學圃’를 호로 삼을 만큼 포은의 학덕을 추앙했던 정훤이 이를 접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타진된다. 「용문몽유록」의 경우 안의에서 태어나 거창 경내에 거주했던 慎諱

(1581~?)이 1636년에 지은 작품으로, 정훤이 태어나 30대 초반까지 살았던 합천 바로 인근에서 나온 작품이다. 더구나 정훤은 33세에 부친의 삼년상을 마치고 곧장 용문산 아래로 거처를 옮기는데, 이곳이 바로 「용문몽유록」의 배경이 되는 곳이니 더욱 사회적 거리가 가깝다 하겠다. 작품에 그려진 꿈 내용은 정유재란 때 있었던 황석산 전투에서 순절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 당시의 공과를 논설하는 전반부와 이 지역의 고사와 산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정훤은 정유재란 당시 모친을 모시고 피란한 경험이 있고 지역의 時事와 산수 또한 그의 관심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바, 여러 모로 이 작품 또한 그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러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창작의 영감과 문학적 영향이 수수되는 것은 아닐 터다. 「학포기몽」이 지어진 시점이 이른바 전란을 배경으로 한 몽유록이 활발하게 산생되고 있을 때이고, 정훤 또한 은거했다고는 하나 두문불출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었다. 꼭 위의 경로가 아니더라도 몽유록이라는 양식에 대한 인지와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탐색한 작품 이해의 단서들과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훤이 「학포기몽」을 쓰는 과정을 재구해본다. 앞서 말했듯 정훤이 1638년 9월 2일 밤 조정립과 강대수가 등장하는 꿈을 꾸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그리고 그 꿈의 골자는 세세한 수준까지 일치하진 않더라도 「학포기몽」에 기술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정훤은 조선의 굴욕적인 항복과 가도 함락, 명의 위축 등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시국을 통탄하고 있었던 터, 자신의 이런 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붓을

들었다. 그간 조선의 정치현실에 대해서는 입을 단단히 봉하고 있던 그였지만 나라의 존망과 세계의 치란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번만은 자신의 입장과 속에 품은 경락을 표출하리라 마음먹은 것이다. 여기서 그는 고민에 맞닥뜨렸으리라 짐작된다. 꿈을 기억나는 대로 읊고 그에 논설을 붙일 것인가. 이는 자신의 꿈을 입론의 수사로만 활용하는 셈인데, 그러자니 조정 대신들을 직접 겨냥한 날선 비판과 당시의 국정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적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정인홍의 일파로 지목되어 무고를 당해 고초를 겪기도 했던 터이니 말이다. 이때 몽유록의 존재는 그에게 일종의 힌트가 된다.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것을 꿈이라는 틀에 담아냄으로써 면피의 수단을 확보하는 것, 이는 위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소의 피세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논설을 펼칠 수 있는 요긴한 방법이었다. 이에 정환은 자신이 꾸 꿈을 스케치 삼아 시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대책으로 채색을 했던 것이다.

「학포기몽」의 양식적 특성이 기몽과 탁몽 중 어느 한쪽으로 명쾌하게 분속되지 않고 혼종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은 위와 같은 집필과정의 고심과 선택의 잔흔이라 하겠다. 실재하는 꿈의 경험과 그 내용의 문제성, 그리고 강하게 추동된 표현의 욕망이 겹치며 맞닥뜨린 고민 속에서 정환은 꿈 소재 문학사의 계보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결과물인 「학포기몽」은 몽기와 몽유록의 경계지대에서 이루어지는 흥미로운 교섭을 보여주는 문학작품이자, 이후 논변형 몽기의 등장을 예비하는 결절점이라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V. 맺는말

이번 논의는 그간 고전문학 연구의 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학포기몽」에 대해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작자 정현과 「학포기몽」의 개략을 살펴보고 창작의 배경과 동기 및 양식적 위상과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의미를 따져보았다. 이를 통해 역사적 격변기를 살았던 한 시골 선비가 꿈을 통해 상시우국의 마음과 학자로서의 현실인식을 담아냈다는 존평을 넘어서는 이해의 지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를 갈무리하기로 한다.

「학포기몽」에 대한 위의 짧은 정의는 틀리지 않지만, 이 작품이 가진 의미를 풍부하게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그 문면을 읽은 것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 배면에는 선택과 강요가 착종되어 만들어지는 피세적 태도와 그럼에도 외면할 수 없었던 현실에 대한 학자로서의 인식과 대응, 둘 사이의 충돌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적 처지와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만들어진 내면의 의식이 응결된 꿈을 자신의 문학적 경험과 역량을 적극 동원하여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빚어낸 것이 바로 「학포기몽」인 것이다. 이 점에서 「학포기몽」은 정현이 지은 여러 시문들 가운데서도 유다른 주목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물론 이 작품의 의의가 이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꿈을 소재로 한 문학적 전통에서도 유의미한 지점에 놓여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학포기몽」은 기본적으로 몽기의 양식적 자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몽유록이 꿈을 활용하는 방식을 소화함으로써 기존의 꿈 소재 문학작품들과는 또 다른 질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몽문학과 탁몽문학이 분명히 구분되는 자질과 속성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전통을 구축하여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꿈이라는 접점 아래 흥미로운 교섭 내지 공생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로서 특기해둘 만하다. 아울러 「학포기몽」의 특질이 이후에 등장하는 논변형 몽기와 맞닿아있는 바, 17세기 이후 보이는 몽기의 양식적 확장의 시초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학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요컨대 「학포기몽」은 전통시대 꿈을 소재로 한 문학창작, 또 그 전통이 갖고 있었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참고문헌】

- 姜大遂, 『寒沙集』, 한국문집총간 속24.
- 權 鞏, 『石洲集』, 한국문집총간 75.
- 李時積, 『雲窓集』, 한국역대문집총서 892.
- 鄭 暄, 『學圃集』,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초간목판본 및 한국역대문집총서 2172 소재 재간목활자본.
- 河弘度, 『謙齋集』, 한국문집총간 97.
- 『仁祖實錄』 권34·37.
- 『推案及鞠案』 冊5.
- 강동욱, 「學圃의 生涯와 圃隱崇慕 樣相」, 『포은학연구』 제7집, 포은학회, 2011, pp.159-185. UCI : G704-SER000002101.2011.7..004; DOI : 10.22866/poeun.2011.7..159
- 구진성, 「仁祖反正 直後 來庵 鄭仁弘 門人들의 不安 要因과 그 對應」, 『남명학연구』 제37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3, pp.187-213. UCI : G704-001230.2013..37.010
- 김익재, 「來庵 鄭仁弘의 現實對應과 그 門人集團의 師承意識」,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준형, 「조선시대 圃隱 후손의 경남 서부지역 정착과 활동」, 『포은학연구』 제7집, 포은학회, 2011, pp.123-157. UCI : G704-SER000002101.2011.7..003; DOI : 10.22866/poeun.2011.7..123
- 양승목, 「朝鮮後期 夢記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정경희, 「조선시대 포은 후손의 경남 동부지역 이거 양상 연구」, 『포은학연구』 제13집, 포은학회, 2014, pp.183-221. UCI : G704-SER000002101.2014.13..004; DOI : 10.22866/poeun.2014.13..183
- 허권수 해제·연구소 자료, 「影印資料 『學圃集』」, 『경남문화연구』 제15호,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1993, pp.137-218.
- Ts. 체렌도르지, 「몽골제국 시대 이후 몽골이 아시아의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아시아문화연구』 제41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99-124. UCI : G704-SER000012510.2016.41..002; DOI : 10.34252/acsri.2016.41..003

Abstract

A Study on *Hakpo-Gimong*

Yang, Seung-mok

This paper is a literary analysis of the prose work *Gimong*(記夢) written by Hakpo Jeong Hwon, a writer who was active in the western part of Gyeongsangnam-do, Korea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In the study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neither this work nor the person Jeong Hwon is mentioned. So, first of all, basic information about the author and his work was summarized and presented. Based on this, attention was directed at the two issues, and Jeong Hwon's inner consciousness and orientation, and the concerns of the creative process accordingly were examined in various ways.

One is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for the creation of this work. This work was created in 1638 when the Qing Dynasty demanded that 5,000 soldiers be conscripted to Joseon. Because of his relationship with Jeong Inhong, Jeong Hwon was extremely restraining his remarks on real politics, living near his hometown and maintaining an attitude of avoiding the world throughout his life. However, the situation in which China's central order collapsed after the Manchu Invasion of Korea was something he could not ignore. In response to this, the result of expressing his worldview and solution is *Hakpo-Gimong*. Another issue is the stylistic feature of this work. Although *Hakpo-Gimong* has the characteristics of Mong-gi(夢記), the content of the dream is long and it has the character of an editorial on social issues, so the characteristics of Mongyurok(夢遊錄) are also sensed at the same time. Therefore,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both sides in detail, it was revealed that it was basically created as Mong-gi and was partially influenced by Mongyurok during the writing process. It was also confirmed that it was

a pioneering work of 'Editorial-oriented Mong-gi' that appeared later.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Hakpo-Gimong* was a work that showed the dynamism of the literary creation based on dreams and the literary tradition during the traditional era.

Key Words : Jung Hwon, *Hakpo-jip*(學圃集), Literature that records dreams, Mong-gi(夢記), Dream

양승목

소속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전자우편 : zimwoo@dgu.ac.kr

이 논문은 2021년 11월 30일 투고되어
2021년 12월 2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12월 28일 게재 확정됨.